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19. 11. 29.(금) 배포</p>	
보도일	2019. 11. 30.(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9.(금)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육기회보장과	담당자	과 장	박지영	(☎ 044-203-67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연구관	곽윤철	(☎ 044-203-6523)
			교육연구사	김다니엘	(☎ 044-203-6522)
			본부장	조지민	(☎ 043-931-0308)
			실 장	구자옥	(☎ 043-931-0513)
			팀 장	김희경	(☎ 043-931-0224)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 (목적)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6월 셋째 주 목요일>
- (대상)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
※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1,754명)의 약 3%, 24,936명(481개교)
- (영역)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정의적 영역>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정의적 특성 설문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 성취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전년대비 영어의 성취도는 상승하고 국어, 수학은 비슷한 수준
- ◆ 중·고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중학교가 읍면지역보다 성취도가 높음

-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

-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	【 보통학력 이상 비율(%) 】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8	81.3 (0.58)	62.3 (0.91)	65.8 (0.96)	81.6 (0.94)	70.4 (1.27)	80.4 (1.03)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20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 ※ 1. 표집시행에 따라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 제시(이하 동일)
 2.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이하 동일)
 3.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이하 동일)

-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 영어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는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분	【 성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 】						【 성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3	76.7 (0.76)	89.6 (0.48)	60.2 (1.07)	62.5 (1.10)	67.4 (1.02)	78.3 (0.88)	6.2 (0.46)	1.9 (0.20)	13.6 (0.56)	9.7 (0.51)	4.7 (0.38)	1.7 (0.21)
고2	71.4 (1.21)	84.0 (0.93)	66.8 (1.56)	64.0 (1.53)	75.5 (1.32)	82.4 (1.05)	5.8 (0.61)	2.0 (0.34)	9.6 (0.80)	8.4 (0.70)	5.0 (0.55)	2.1 (0.31)

-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는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지역규모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 】

구분 학년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중3	84.9 (0.86)	79.6 (1.43)	64.9 (1.68)	51.8 (2.14)	75.4 (1.40)	65.9 (1.86)
고2	77.7 (1.28)	74.9 (2.64)	68.2 (1.67)	61.1 (4.15)	80.0 (1.39)	75.4 (3.10)

【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구분 학년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중3	3.8 (0.43)	4.9 (0.65)	10.3 (0.76)	15.2 (1.18)	3.4 (0.44)	3.6 (0.53)
고2	3.9 (0.58)	3.1 (0.89)	7.6 (0.81)	9.3 (1.69)	3.6 (0.58)	3.0 (0.77)

□ 정의적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64%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고등학생 간의 격차가 없어졌다.

* 교우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정도

** 학교에서의 경험(동아리 활동, 학교 의사결정 참여 등)과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 2013년~2019년 학교생활 행복도 '높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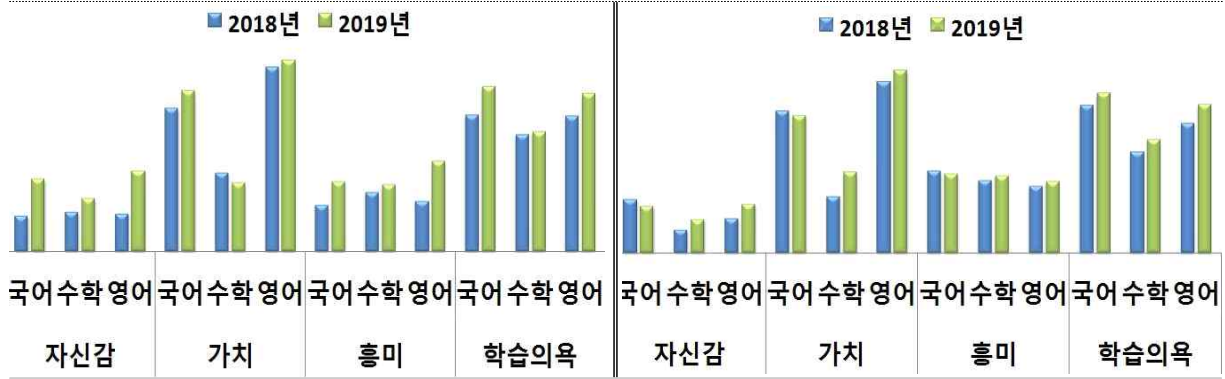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도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 특히,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이 높았고, '가치'와 '학습의욕'이 '자신감', '흥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18년~'19년 교과 정의적 특성 '높음' 추이(중) 】

【 '18년~'19년 교과 정의적 특성 '높음' 추이(고) 】



□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4,018개교로 대폭 늘었으며, 2022년까지 5,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추진 상황(2019년) 】

- 학교 안·밖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안전망 확대 및 내실화
 - (교실)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 : (2018) 42교 → (2019) 74교 (76.2% ↑)
 - (학교 안) 두드림학교 : (2018) 2,720교 → (2019) 4,018교 (47.7% ↑)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2018) 118개소 → (2019) 125개소 (5.9% ↑)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 (2018) 초3~중3 → (2019) 초1~고1
- 교원 지도역량 원격 연수 신설(7개 과정, 각 15차시) 및 연수 표준안내서 제작
-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2019.6.26. 교육위원회 의결) 제정 노력

-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학습의욕이 낮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경험을 높이기 위한 활동·탐구 중심의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농어촌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학교(82개교) 및 공동 교육과정(9개 교육지원청) 지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별첨) 1부.

